

# 찬바람 부니...광주에 '와인바람'



〈댄싱 볼 카베네 소비뇽〉

기획 제품·한정수량 내걸고 저렴한 값에 선보여  
이마트 '가을와인 장터' 롯데마트 '프리미엄 장터'  
신세계 와인창고 방출전, 롯데 광주점 와인박람회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와인바람'이 불었다. 저마다 '기획제품'과 '한정수량'을 내걸고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선보이고 나섰다.

특히, 올해 세계 최대 생산국인 프랑스의 와인 생산량이 60년 만에 최저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미국 파파벨리 와인산지도 산불로 피해를 보는 등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와인 구입의 '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제공하기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가을 와인 장터'를 연다.

이에 따라 행사기간 이마트 상무점과 봉선점에서는 다양한 와인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여기에 고급 와인으로 꼽히는 5대 사도 와인품목을 한정수량으로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프랑스 와인너리 '앙드레 클루에'(Andre Clouet)와 손잡고 샴페인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주)광주신세계도 오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지하 1층 와인매장에서 2017년 하반기 와인 창고 방출전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피치니까안피', '운드라가

시바리스 까베르네 소비뇽', '로스바스코스 그랑리저브', '사또 글로리아' 같은 1만~6만원대 와인 등 총 450여종의 와인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롯데쇼핑 창립 38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호남 최대 규모의 와인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와인 3종을 채택해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프랑스 가리지 와인의 대명사 '장뤼튀느방'의 한정판 '튀느방' 와인을 창립 38주년 기념 와인으로 선정해 선보인다.

사또 바삭, 로스파소스 말백 등 데일리 와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와인 1만·2만·3만원 균일가' 행사에 더불어 '프리미엄와인 한정판매행사'를 통해 그랑크뤼급 프리미엄와인도 70~80% 할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와인코너에서 직원들이 창립 38주년 기념와인 튀느방 가리지 귀배 스페셜 에디션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인한다.

롯데마트도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을 프리미엄 와인 장터'를 진행한다. 일부 점포에서 '칠레 알마비바', '프랑스 그랑크리클라세사또 까망삭', '사또 파송 롱그릴바롱', '사시까이아' 등을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아르헨티나의 우수 와인너리 상품도 단독 출시한다. '핀카라스 모라스 배럴 셀렉트 말백·쉬라' 2종을 각각 2만5000원에 선보이며, 2명 구매시 각 1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신세계, 뷰티 스페셜티 '시코르' 오픈

클램글로우·립스틱 킴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140개 뷰티 한자리에  
남성 뷰티 제품도 갖춰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오는 27일 뷰티 스페셜티 스토어 '시코르'(CHICOR)를 지하 1층 패션스트리트 내에 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코르는 신세계가 직접 큐레이션(curation) 한 뷰티 브랜드들을 각 색선별로 구성해 고객들이 한번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한 편집숍이다. 약 140여개의 뷰티 브랜드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해외 유명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직구'(해외직접 구매) 열풍을 일으켰던 '클램글로우'를 비롯해 '립스틱 킴', '바이테리'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라운드 플랜'을 포함한 한국 대표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조성아 22', 스타일난다의 '3CE', '클리오' 등도 시코르에서 만나볼 수 있다.

140여개의 MD를 갖추고 있어 특정 제품을 비교 테스트하고 구매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던 수고도 덜 수 있으며,

드라이어, 브러쉬, 고데기 사용도 가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타일링 연출도 할 수 있다.

남성들을 위한 뷰티 제품들도 준비돼 있다. 프랑스 자연주의 브랜드 '룩시팡'과 두피와 헤어케어로 유명한 '르네뤼테르', '모로칸오일' 등이다. '렘시리즈', '비오템 옴드' 등과 더불어 기존에 백화점에서 볼 수 없었던 '스웨거', '블락' 등도 갖췄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시코르는 고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상품들을 직접 비교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경험적 요소를 극대화했다"며 "광주 최대 MD

구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광주의 대표적인 '뷰티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시코르 오픈기념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릴레이 메이 크업 쇼를 진행한다.

27일 오후 1시~3시 유명 뷰티 블로거 민새롬의 메이크업 쇼가 열리고 이어 5시~7시에는 K뷰티 대표 아티스트 '박태운'의 쇼가 준비돼 있다. 28일·29일(오후 2시~4시·6시)에는 메이크업 브랜드인 '에스쁘아'에서 메이크업 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롯데백화점 광주점 창립 38주년 대형 이벤트

모피 기획전·속옷 할인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롯데백화점 창립 38주년'(1979년 11월 15일)을 맞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국제모피 단독 대량 기획전'을 26일부터 31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40억 물량으로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18년 신상품도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번 국제모피 대전 행사의 주요 품목으

로 블랙 그라마 링크제킷, 조끼, 베스트, 하프코트, 링크 머플러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2~300만원대에 만나 볼 수 있다. 또 균일가 행사로 100만원과 2백만원대 링크 코트 및 재킷도 선보인다.

이어 창립 38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속옷 브랜드 트라이엄프에서는 28일 단 하루동안 전 품목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남성정장 맨인슈트에서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장, 코트, 셔츠, 넥타이,

벨트 등 총 5종 세트를 38만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구매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되며 금액할인 및 사은품도 중복 증정된다. 롯데카드·엘포인트 카드로 구매하신 모든 고객께 금액대별 상품권도 증정된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38년간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롯데백화점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창립 행사 기간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상품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中 사드 보복에도 9월 면세점 매출 사상 최대치

1조 4000억으로 8월보다 4.5% 증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도 지난달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했지만 보타리상 구매가 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2억3226만 달러(약 1조4000억원)로 8월보다 4.5% 증가했다. 두 달 연속 면세점 월별 매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9월까지 면세점 누적 매출은 92억2천645만 달러(약 10조4129억원)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면세업계는 올 상반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여름을 기점으로 매출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11억4024만 달러(약 1조2867억원)로 역대 최고 월별 매출을 기록한 뒤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4월 매출은 8억8921만 달러(약 1조34억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차츰 회복세를 보이면서 8월에 10억 달러를 넘겼고, 9월에는 또다시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점 이용객 수도 7월 369만명, 8월 388만명, 9월 390만명 등으로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다.

9월 이용객 중에서는 외국인인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중국 보타리상의 대량 구매가 늘면서 면세점 1인당 평균 구매액은 지난해 9월 421달러에서 올해 9월 733달러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늘어난 매출만큼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속 빈 강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면세점 증가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면세점마다 중국 보타리상을 유치하기 위한 할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보타리상 효과로 매출은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유지 경쟁에 따른 할인 등 비용이 커져 면세점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17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무인텔”

##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친절상담 010-3605-5000